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PHANTOM

가제 : 팬텀

저자 : Leo Hunt

출판사: Orchard Books

발행일: 2018년 8월 9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일상이 된 가까운 미래, 해킹으로 먹고 사는 고아가 거대 기업에서 인류의 미래가 걸린 비밀 기술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SF
- * “십대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알아 듣는 귀를 가진 작가” - 「가디언」, 이전 작 『Eight Rivers of Shadow』에 대한 서평

지구상에 남은 물이 거의 다 오염되고, 상업 광고는 벽면이 아닌 하늘에 구름처럼 떠 다니는 세상,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뒀두는 대신 머릿속을 ‘백지’로 만든 다음 노예로 부리는 가까운 미래에서, 부모 없이 홀로 살 길을 마련해야 했던 노바에게 선택권은 거의 없었다. 400층 높이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오른 거대한 지상 침탐에서 세상 전체를 좌우하는 지배계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갈 곳은 빛이 없는 지하 세계뿐이었다. 그곳에서 해커로 일하면서 ‘거머리’라는 별명답게 그 지배계층이 가진 정보 중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쳐다 파는 일로 먹고 살던 열여섯 살 노바는 실수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 코드에 손을 댄다. 그러나 큰 처벌을 받을 줄 알았던 그 실수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된다. 해커들 사이에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존재, 모스가 노바의 실력을 알아보고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업체, ‘블리스 사’에 잠입하는 임무를 맡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공만 하면 그 동안 켜켜이 쌓인 빚을 다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큰돈을 준다는 모스의 말에 노바는 주저 없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블리스 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임을, 모스의 계획도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바는 너무 늦게 깨닫는다.

모스는 노바에게 블리스 사에서 가장 엄격한 보안이 적용된 비밀 부서, ‘인류 미래부’ 대표인 그레일의 개인 비서로 위장할 것을 지시한다. 블리스 사는 개개인의 신경에 설치하면 침탐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거대한 정보망인 메타넷에 접속할 수 있는, 특별한 이식체를 제조하여 현재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블리스 사의 막강한 영향력에 반대하는 모스는 그 독단적인 기세를 꺾을 수 있는 프로그램, ‘팬텀’을 개발했다. 이용자의 신원을 철저히 감춰주는 프로그램으로, 블리스 사가 이용자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용자 몰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준 놀라운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블리스 사를 더 철저히 무너뜨리려면 중요한 기술을 파악해야 했고, 그 일을 노바에게 맡긴 것이다. 노바가 해킹 도중에 건드린 건 바로 이 팬텀 프로그램의 코드였고, 그 사실이 지하 세계 해커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에이드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무서운 응징이 가해지리라는 예상과 달리, 모스는 노바에게 이 위험하지만 보상이 충분히 매력적인 일을 제안하고, 보안이 철저한 블리스 사의 내부 통신망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노바의 신경 시스템에 특수한 통신 프로그램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노바는 별 의심 없이 그것까지 수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의 실체는 노바가 블리스 사 내부로 무사히 들어간 뒤에 비로소 드러난다. 단순히 비밀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바의 온 몸을 지배해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조종 장치였다. 모스는 노바가 의지와 상관없이 총을 꺼내 들고 그레일을 향해 겨누도록 조종하고, 노바는 줄지에 살인자가 될 상황에 처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캠벨이라는 자가 나타나 암살을 저지한다. 그러나 노바는 다시 나가지도 못한 채, 블리스 사에 갇혀버리고 만다. 모스는 왜 처음에 밝힌 계획과 달리 그레일을 죽이려고 했을까? 캠벨은 누구길래 모스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사태에 휘말린 노바는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블리스 사의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태어나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소녀, 지란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그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그레일이 자신의 엄마라는 말에 놀란 노바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소녀에게 이끌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포착한 그레일은 모든 비밀을 털어 놓는다. 지구가 물 전쟁으로 급속히 파괴되던 시절,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AI를 만들려는 과학자가 있었고 무수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그의 뒤를 이어 받은 사람이 바로 그 과학자의 딸, 그레일이었다. 지란은 그레일이 만들어낸, 유일하게 성공한 AI였다.

살인을 막아준 캠벨이 노바가 블리스 사 밖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대로 두면 언제 죽음에 처할지 모르는 지란도 함께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노바는 캠벨에게도 뭔가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레일의 부친이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그 실험에서 딱 한 번 성공했던 결과물이 캠벨인데, 불완전한 AI로 완성되어 의식이 두 개로 쪼개져버린 것이다. 나머지 반쪽이 바로 모스였다. 분리된 의식이 하나로 융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AI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바는 자신을 여러 번 구해준 캠벨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지만 모스의 막강한 힘을 누르기엔 역부족이다. 과연 노바와 캠벨은 블리스 사도 무너뜨릴 수 있는 모스를 찾아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지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독특한 설정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레오 헌트(Leo Hunt)는 1991년생으로, 영국 뉴캐슬의 아동 서점 ‘세븐 스토리스(Seven Stories)’에서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작가를 꿈꿨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미국 문학과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신입생 때 『Thirteen Days of Midnight』를 썼다. 2014년에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했다. 저서로는 『Eight Rivers of Shadow』(2016), 『Seven Trees of Stone』(2017)가 있다.

제목 : THE LAST, LAST DAY OF SUMMER

가제 : 마지막이 되어버린 여름

저자 : Lamar Giles

출판사: Versify (Houghton Mifflin Harcourt)

발행일: 2019년 봄

분량 : 약 217페이지

장르 : 판타지(10세 이상)

*** 에드가 상 YA 부문 최종 후보로 두 차례 선정된 작가의 신작 판타지 소설**

*** 노턴 저스터의 『The Phantom Tollbooth』와 미스터리 시리즈 『The Hardy Boys』가 결합된 듯한 매력적인 스토리와 풍부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로건 카운티에서 ‘전설적인 알스턴 형제들’이라 불리는 두 사촌형제, 오토와 쉬드가 마음껏 모험을 즐기던 여름 방학이 끝나고, 숙제와 지루한 수업, 아침 자명종 소리에 시달려야 하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루도 조용히 지나는 법이 없는 두 형제가 다시 학교에 갈 날만 고대하던 할머니가 달력에 개학일을 아주 큼직하게 표시해둔 덕분에, 오토와 쉬드는 너무 열심히 노느라 하마터면 오는 줄도 모를 뻔했던 방학 마지막 날을 우울한 마음으로 맞이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지막 대모험에 나선 두 사람은 할머니 집과 마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 풀밭을 뒹굴면서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놀 수 있을까 고민했다. “방학이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당연히 이런 말들도 입 밖으로 터져 나왔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치고 정말로 방학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토와 쉬드가 아무 생각 없이 바란 그 소망은 이루어졌다! 그것도 아주 기상천외한 일들과 함께 정말로 방학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아예 멈춰버린 것이다.

두 사람이 언덕에서 재미 있는 일이 없나 고민하고 있을 때, 멀리서 키가 크고 팔다리가 가는 낯선 남자가 휘적휘적 걸어왔다. 그는 가까이 오자마자 오토와 쉬드를 단번에 알아보고, 두 사람의 ‘팬’이라며 엄청 반가워했다. ‘깡깡 웃는 메뚜기’를 개발해서 온 마을에 퍼뜨린 바람에 시끄러운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싹 먹어 치우는 불상사를 일으키고, ‘청록색 옷을 입은 여인의 미스터리’를 가장 먼저 해결한 주인공이 이 알스턴 형제들이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다. 자신을 ‘미스터 플렉스’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대뜸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면서, 두 사람이 방학이 하루만 길어졌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오는 길에 우연히 들었다며 어쩌면 자신의 선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처음 본 어른이 뭘 주겠다고 하니, 조금 겁이 난 두 사람은 그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기도 전에 선물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미스터 플렉스가 건넨 건 카메라였다. 최신식 카메라도 아닌, 어디 박물관이나 전시될 법한 낡고 투박한 카메라를 불쑥 내민 것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시시하고 재미 없어 보이는 그 카메라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미스터 플렉스의 권유로 나란히 붙어서 포즈를 취한 오토와 쉬드를 향해 그가 카메라를 대고 셔터를 누른 순간, 그의 뒤

쪽에서 갑자기 벼락치듯 이상한 전기 같은 것이 허공을 가르고 땅에 떨어졌다. 깜작 놀란 오토와 쉬드가 두리번거리는 사이, 그 번개가 내리 쏘인 자리에서 사람이 하나 꿈틀대며 일어섰다! 가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는 스스로도 놀랐는지 잠시 멍하게 두 형제를 쳐다보더니, 땅에 떨어지면서 발로 걸어차버린 바람에 쓰러진 미스터 플렉스를 발견하고서야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다짜고짜 플렉스를 깔고 앉아 그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싸움은 말려야 한다는 생각에 오토가 달려가는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위에 올라탄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미스터 플렉스의 몸이 고무줄처럼 쪽 늘어나면서 요리조리 주먹을 피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오토와 쉬드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을 보고 번개와 함께 떨어진 남자가 소리쳤다. “카메라 챙겨서 어서 도망가! 내가 이놈을 잡고 있을 테니까!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진은 절대로 찍으면 안 돼!”

부리나케 달아난 두 사람은 얼른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지만, 그곳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평소 집 울타리를 한 번도 잠근 적이 없는 할머니 집 울타리가 잠겨 있고, 집안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요리를 하다가 그대로 동상처럼 굳어 있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냄비에 할머니가 붓고 있던 액체마저 사진 속에 담긴 폭포마냥 흐르던 그대로 멈춰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로 달려가니 그곳도 상황은 같았다. 오토와 쉬드는 그제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리고 이 요상한 사태를 해결하려면, 미스터 플렉스를 다시 찾아야 한다.

추억에 길이 남을 모험을 기대했지만 방학 마지막 날이 이렇게나 엄청난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오토와 쉬드는 미스터 플렉스를 찾아 로건 카운티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멈춰버린 시간에 자신들처럼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왜 누구는 얼어 붙은 시간과 함께 정지되고, 알스턴 형제들과 몇몇은 멀쩡할까? 두 사람은 ‘시간 보호대’와도 맞닥뜨리고, 미스터 플렉스가 처음부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시간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리하는 시간 보호대가 플렉스의 꾀에 빠져 그를 돕기 시작하고 다시는 시간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사태가 펼쳐진다. 과연 두 사람은 미스터 플렉스의 주문을 풀고 시간이 다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에 휘말린 사이, 늘 끈끈했던 오토와 쉬드의 형제애를 뒤흔드는 일까지 더해지면서 두 사람은 더 큰 위기에 몰린다. 그저 하루만 더 놀면 좋겠다는 바람이 실현된 엉뚱한 상황을 토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세상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재미 있는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라마르 가일스(Lamar Giles)는 소설가이자 아동 문학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 ‘We Need Diverse Books’의 설립자다. 데뷔 소설 『Fake ID』 (HarperCollins 2014)와 두 번째 YA 스릴러 『Endangered』 (HarperCollins 2015)로 에드가 상 YA 부문 최종후보로 두 차례 선정됐다. 그 밖에도 『Overturned』를 발표했으며 단편 모음집 『Three Sides of a Heart』에도 참여했다.